

여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2013 하계U대회 광주에서

유치 절차·전략

# “5공 정화유공 표창 학자적 양심 있나”

김성이 보권

“수지아파트 분양권 자료 누락은 투기” 이윤호 지시

부인 명의 예금 최초 신고때 12억 누락 유인촌 문화

국회는 27일 10개 상임위원으로 유영환 의외교통상, 김도연 교육, 김성이 보건복지, 이윤호 지식경제, 이영희 노동부, 정운천 농림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등 이명박 정부의 새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보건복지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일산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기의혹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및 5공 시절 ‘사회정화 유공 표창’ 전력을 거론하며 학자적 양심과 이념적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강기갑 의원은 “후보자는 청소년보호위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1천280만원을 지방순회시 청소년 관련단체의 격려금으로 사용코자 했으나 일정이 여의지 않아 2개월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당시 감사조치 결과 공문을 보면 2개월이 아닌 6개월이나 반납을 지연했다”며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산업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 및 증여세 미납 의혹, 장녀의 국적 포기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 롯데캐슬 엘파이어 외에 당진 일야,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 분양권, 송파구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권 매입 등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2002년 매도한 수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소명자료에도 누락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미등기 분양권 전매”라며 투기의혹을 제기한 뒤 증여세 탈루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 내정자=농해수위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이 키워를 수입하고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지원받았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서재관 의원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에서 정 내정자의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며 낸 성명서에 다래묘목 수입문제, 계약서 위조 등

후보자 관련 의혹과 잡음이 있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은 “정 내정자가 전형적인 명의신탁 수법으로 제2도 한라봉 농장을 2억1천500만원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문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재산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춰 일본 국제 투자, 골프회원권 시세 차익,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유 내정자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강혜숙 의원은 “유 내정자가 실소유주인 유씨아터에서 활동 중인 단원 69명 모두 비정규직이고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유 내정자는 그야말로 약력 극단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강남구 청담동 유씨아터 건물의 부인과의 공유 지분관계가 표시되지 않았고 부인명의 기업은행 최초 신고 12억원이 누락됐다. 또 장남(23세·군 입대)과 차남(19세·출국)의 재산증거 사유가 불급저축, 급여소득 등이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및 상속·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노당 강기갑 의원 질의에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답변하고 있다.

## ■ 남주홍·박은경 전격 교체 왜?

청와대가 27일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교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자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유보적 태도를 철회하고 적극적인 수습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그동안 일부 각료 교체 요구를 해왔던 한나라당의 견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는 한편 각료 내정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날 한나라당 감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각료 후보자들의 거취 경리를 요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통합민주당에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각료 후보들을 교체함으로써 한차례 무산된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처리안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각료 내정자 교체의 실질적 명분은 4월 총선을 앞둔 민심 이반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내외부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민 정서’를 움직이고 있으며 총선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받아

들며 최근 일부 각료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여러 경로를 통해 각료 내정자들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 측근 라인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청와대가 두 사람의 각료 내정자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급한 불은 끄지만 향후 정국은 녹록지 않다.

당장 장관 임명도 전에 무려 세 사람의 각료 내정자가 출몰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내각 구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정권 출범부터 야당에 계속 밀리면서 정국 주도권도 위정거리고 있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각료 내정자 교체를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에 샴페인 터뜨린 것 같다”며 “여기서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총선 앞두고 민심이반 ‘불끄기’

## 집행위원 공약 관건 국가차원 지원 필요

대규모 국제 행사나 이벤트를 끌어오려면 치밀한 유치 전략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는 각국 정부가 지지 국가를 결정하는 세계박람회 등과는 달리 FISU 집행위원들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실제 투표권을 쥐고 있는 각국의 집행위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대회 유치 활동을 주도할 유치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꼭 필요한 인물의 경우 삼고초려도 마다

정·관계 등 214명 유치위 구성

민주·인권·평화도시 집중 홍보

이들 도시를 따돌리

기 위해 유치는 집행

위원들을 상대로 광주 유치의 당

위성을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

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이자 16

개의 대학이 소재한 교육·문화도

시로서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 지

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

간다는 전략이다.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에 걸맞는 ‘문화대회’ 구성

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참가를 유

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

려나갈 요량이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국 정부

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

요하다.

시는 삼상전자와 기아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등 광주지역 글로벌

기업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대학스포츠 관계자와 FISU

집행위원간 휴먼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으로는 5년 간 3천368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등 7개 경기장과

3개 연습장을 신축하고 54개

경기장도 개·보수할 계획이다.

유치위는 아울러 지난 12~23일 스웨덴, 포르투갈, 스위스 등 유럽지역 국가올림픽위원회를 방문해 광주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외 유치활동에도 시동을 걸었다.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90일. FISU는 다음달 15일까지 유치 희망국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4월 중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5월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집행위에서 개최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현재 2013년 하계U대회 유치 의향을 밝힌 곳은 광주를 포함 5개국 7개 도시, 이 중 2년 전 중국 선전에 한 표 차이로 2011년

대회를 내준 뒤 와신상

담해온 러시아 카잔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

다.

이들 도시를 따돌리

기 위해 유치는 집행

위원들을 상대로 광주 유치의 당

위성을 집중 홍보해나갈 계획이

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이자 16

개의 대학이 소재한 교육·문화도

시로서 독특한 이미지를 살려 지

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

간다는 전략이다.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에 걸맞는 ‘문화대회’ 구성

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참가를 유

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

려나갈 요량이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국 정부

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

요하다.

시는 삼상전자와 기아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등 광주지역 글로벌

기업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대학스포츠 관계자와 FISU

집행위원간 휴먼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으로는 5년 간 3천368억원

을 투입해 수영장 등 7개 경기장과

3개 연습장을 신축하고 54개

경기장도 개·보수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